

건강 칼럼

충치 심해지면 극심한 통증 동반... 치아 상실 시 임플란트로 대체 가능

구강 건강은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첫 단계다. 치아는 기본적으로...



김혜연 김동구 연세치과 대표원장

하지만 우리 입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유해 세균이 서식하는 만큼 충치가 발생하기 쉽다. 충치는 보통 어린이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구강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발생할 수 있다.

고 크기가 작아 발견도 어려운 편이다. 법랑질 안쪽 상아질에 충치가 번지면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에 자극이 느껴진다. 상아질 안쪽 치수까지 충치가 접이되면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으며 신경치료, 크라운 등 보철치료가 필요하다. 신경치료 시에는 염증이 발생한 치수조직을 모두 제거한 뒤 치수의 통로인 치근관 형태를 다듬고 소독한다. 이후 충전재를 채우고 밀봉한 뒤 크라운 보철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치수가 괴사할 정도로 충치가 심해지면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이 단계에서는 치아를 살릴 수 없어 발치를 고려하는 경우

도 있다. 충치와 통증으로 인해 치아를 상실하면 인공치아를 통해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줄 수 있다. 인공치아에는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등이 있는데 최근에는 임플란트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의 자리에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부작용이 거의 없는 티타늄으로 제작된 본체를 심고, 그 위에 자연치아와 유사한 보철물을 씌우는 치료법이다. 이 방식은 주변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저작력과 심미성이 우수하다. 잇몸뼈를 보존하고 턱뼈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주며, 관리만 잘 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임플란트는 식립 전 엑스레이와 3D CT 등을 통해 환자의 구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건강상태 등을 충분히 고려해 꼼꼼한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철물은 주변치아와의 조화를 위해 색상, 모양 등에 신경을 써서 개인 맞춤형으로 제작해야 한다. 또한 식립 후 관리가 중요한 만큼 보철물 수복 후 1년 간은 임플란트를 집도한 의뢰인과 주기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및 관리를 해야 한다. 치아는 한 번 손상되면 자연치아가 이뤄지지 않으므로 평소 올바른 양치 습관과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구강 위생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 충치로 인해 자연치아를 상실하면 임플란트, 무절개 임플란트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병원 선택 시 임상경험이 풍부한 의뢰진, 다양한 의료 장비 보유 여부, 체계적인 사후 프로그램 등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설

전북 무주 최고 장수마을

전라북도 무주가 10만 명 당 100세 노인이 73.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으로 드러났다. 무주에 이어 전남 보성군(70.2명), 고흥군(57.9명), 전북 고창군(56.8명), 경북 영양군(53.4명) 등도 초고령 인구 비율이 높았다. 무주군은 청정자연과 노인맞춤형 복지 정책 때문에 장수노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장수마을은 산간 지역에 많이 분포한다.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공기가 맑기 때문이다. 경사진 길을 오르고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운동량도 많다. 무주군의 경우 노인들이 은퇴 후에도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장애인·노인종합복지관, 노인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 맞춤형 돌봄 서비스도 진행한다. 만 7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 12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이·미용 복지 사업도 추진

중이다. 가족 동거는 90%에서 50%로 격감했다. 대신 요양시설 거주가 20%로 늘어났다. 이는 노인복지법, 장기요양법, 건강보험 등이 강화된 덕분에 풀이된다. 장수노인들은 모두 전쟁과 빈곤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러나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골다공증, 골절, 심혈관질환, 암, 신장질환, 간질환, 천식, 뇌혈관질환 등 11개 만성병을 갖고 있는 노인은 극히 적었다. 평균 1.1개에 그쳤다. 허약한 신체와 갖고 태어나 성장했지만, 수명을 단축하는 만성병은 거의 없는 셈이다. 정신건강 상태도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우울감도 전혀 없었다. 과거에는 물 좋고 공기 좋은 지역에 100세인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자체 차원에서 우울감을 예방하고 노인 복지 시스템이 잘 갖춰진 곳이 '장수 마을' 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제21차 신한국포럼 개최

최근 세계 곳곳에서 전쟁 등으로 반인륜적인 군사적 폭력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의 목소리와 함께 비탄 여론도 거세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천주평화연합(UPF)이 한반도 정전 70주년을 맞아 제21차 신한국포럼을 개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포럼의 주제는 '정전체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였다. 행사에는 각계 지도자 및 평화대사, 평화에원 등 평화와 통일을 위한 활동가 10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남북한의 정전 체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 발표와 질문으로 이뤄졌다. 정전체제의 70년 기간 동안 정부에서 표방했던 통일 정책과 시대에 따른 통일인식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적 가치로서 통일 지향점이 중요한 이유다. 고착화된 정전 체제 아래의 남북한 관계에서 통일에 대한 국민 인

식을 기반으로 평화 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UPF는 UN 경제사회이사회 '포괄적 협의 지위(General consultative status)'를 가진 글로벌 NGO 단체다. 국내에서는 17개 광역 시도 및 232개 시군구에 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한 UPF의 신한국포럼은 격월로 열리고 있다. 대한민국의 사회 명사들을 초청,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국가 발전과 평화 세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주제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갈수록 일축축발의 군사적 대립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세계정세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UPF가 주관하는 '신한국포럼' 등을 통해서 남북한 간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때이다. UPF 운동에 더욱 힘을 모아 주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블링컨 방문 반대하는 서안지구 팔레스타인 주민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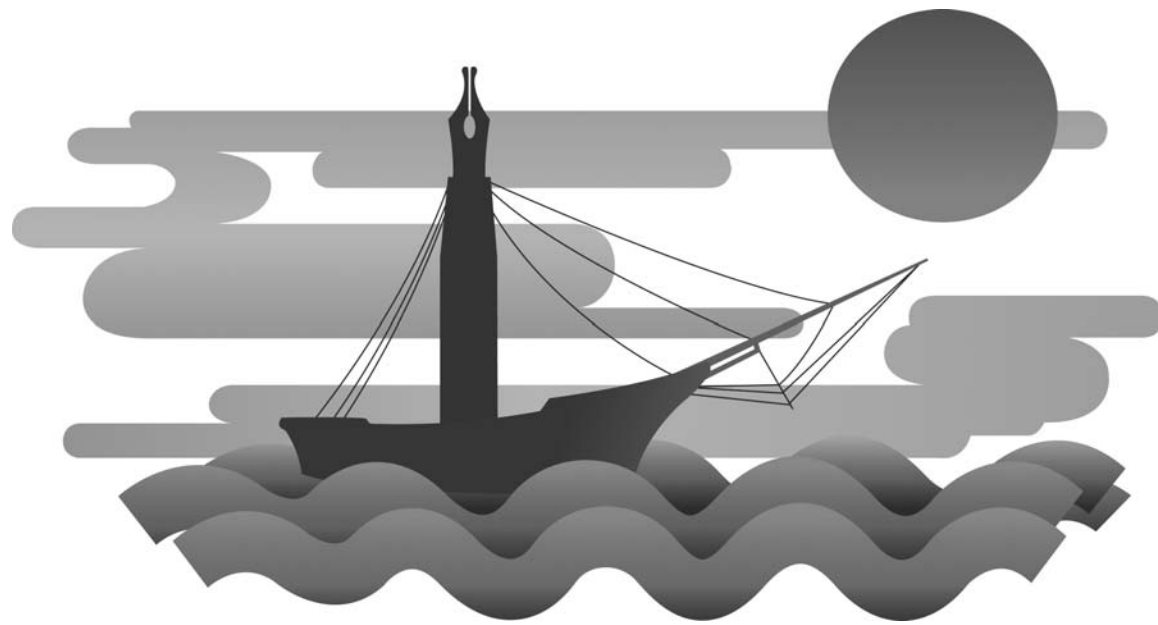
5일(현지시각) 오르던강 서안지구 리말리에서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토니 블링컨 미국무 장관의 방문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생존자 찾으려 모여든 팔레스타인 주민들



5일(현지시각) 가자지구 알마가지 난민촌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건물 구덩이에 모여 생존자를 찾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